

‘맥스737’ 도입부터 꼬여… M&A 노딜 등 ‘비운의 이스타’

✈️ 옥석 드러나는 LCC

③ 이스타항공

지난 3월부터 전노선 운항 중단
이미 적자상태… 내달 정리하고
미지급 급여도 계속 늘어 부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에 더해, 제주항공과의 M&A(인수합병)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8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설립돼, 올해 13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기준 이스타항공을 이용한 여객 수는 619만 3866명으로 그간 전체 LCC(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업계 5위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잉 이슈,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제주항공과의 M&A마저도 ‘노딜’로 끝나면서 현재 파산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처음 경영난을 겪었던



이스타항공 항공기.

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737 맥스8 항공기가 도입된 시점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8년 12월 국내 최초로 737맥스8 항공기를 도입했고, 지난해 1월에는 동종종의 2호기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4대의 맥스 기종을 추가로 도입해, 총 6대를 운영할 방침이었다. 해당 기종은 보잉 737시리즈의 4세대로, 중거리 노선까지 운항이 가능해 단거리 노선 전략에 한계를 느끼던 저비용항공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도입 약

3개월만에 외려 손실만 떠안게 됐다. 앞서 737맥스8 항공기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지난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운항이 잠정 중단 조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거리 노선의 취향으로 차별화를 꾀하려던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2대 보유에 따른 비용만 늘게 됐다. 항공기는 운항하지 않더라도,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경영난의 타개책으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 LCC업계 1위

항공사인 제주항공과의 M&A를 통한 재도약을 택했다. 동종 업계 간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인수합병의 결정적 배경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제주항공에 의해 결국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 받으면서, 현재 인력감축 추진과 함께 새 인수자를 찾아나선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정규직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오는 7일 정리하고 대상자를 통보한 뒤 10월 6일까지 약 700여 명의 직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난제는 남아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은 만큼 새 인수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미 지난해 1분기 기준 영업이익 -359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전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셋다운’을 유지해 왔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계속 늘고 있어 현재 부채

는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셋다운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회복해, 오는 10~11월 중 국내선 운항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굉장히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몇 개 업체들은 예비 투자자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제 가격이 중요할 것 같다.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기존 경쟁사 대비 좀 열위에 있던 상황은 맞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을 가격에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특히 LCC의 경우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다. 비행기도 다 임차기 때문이다. 그나마 꼽을 수 있는 게 운수권이나 공항에서 갖고 있는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정도다. 그런 걸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전자, 홈시네마 시장 공략 본격화

‘LG 시네빔 레이저 4K’ 출시
4K 해상도에 100만:1 명암비 지원
듀얼 레이저 광원으로 풍부한 색표현

LG전자가 ‘시네빔’으로 홈시네마 수요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8월 31일 가정용 프로젝터 신제품 ‘LG 시네빔 레이저 4K(모델명 HU810P)’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네빔은 고화질·초대형·편의성 3박자를 두루 갖춘 프로젝트다. 4K(3840×2160) 해상도에 100만:1 명암비를 지원해 입체감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집에서 영화관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렌즈에 투사되는 광량을 조절하는 LG전자만의 독자 기술을 탑재해 밝은 공간에서도 또렷하고 생생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제품은 파란색과 빨간색 레이저 광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 레이저



LG 시네빔 레이저 4K.

/LG전자

광원’을 활용한다. 단일 광원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섬세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디지털시네마 색표준(DCI-P3) 기준 97% 충족한다. 통상 업계는 이 표준을 90% 이상 충족하면 UHD 프리미엄 화질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수명도 최대 2만 시간에 달한다.

화면 크기는 40인치에서 최대 300인

치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화면 최대 밝기는 쏫볼 2700개를 동시에 켜고 것과 같은 2700안시루멘이다.

▲영상과 화면의 주사율을 일치시켜주는 ‘리얼시네마’ ▲화면의 빠른 움직임을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트루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 기능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식기세척기로 식중독 예방하세요”

디오스 식기세척기 트루스팀
식중독 대표 원인균 6종 99.9% 살균

LG디오스 식기세척기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인터넬의 식중독균 제거 성능 시험 연구를 통해 트루스팀이 대표 원인균 6종을 99.99% 없애준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살균세척코스를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를 99.999% 제거했다. 앞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를 각각 99.999% 없앴다. 세계김치연구소가 같은 코스로 실험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장관출혈성 대장균(O157:H7)이 99.999% 제거됐다. 그 밖에 여러 전문기관들로부터 13종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을 인정받았다.

앞서 세척력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LG전자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소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식기세척기와 손씻거지 비교 행동연구’를 통해 이 제품의 세척력이 손씻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삼성페이 전용 신용카드 출시

삼성페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전용 신용카드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8월 31일 ‘삼성페이카드(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와 협력했다.

‘삼성페이카드’는 삼성페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용카드다. 삼성페이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실물카드로도 발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삼성페이 앱을 통해 카드 신청·발급부터 결제, 다양한 카드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할인 내역·실적 총액여부·결제예정금액·카드번호 및 해



외결제차단 등도 삼성페이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 결제시 0.5%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삼성페이 쿠폰샵에서 결제하면 3%, 캐시비 후불교통 이용시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업그레이드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 출시
도어패널 확대, 4가지 색상 추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냉장고가 업그레이드됐다.

삼성전자는 8월 31일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제품 타입과 용량에 따라 140~599만원이다.

‘김치플러스’는 삼성전자가 2017년 처음 선보인 김치냉장고다. 김치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4계절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2019년에는 비스포크 디자인까지 적용했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도어패널 종류를 1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삼성전자

출시한 세프컬렉션 냉장고와 어울리는 핸드 메탈 계열 색상 4가지까지 더해 삼성전자의 어떤 냉장고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형태는 프리스탠딩 4도어와 키친핏을 적용해 빌트인 효과를 낼 수 있는 3도어·1도어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출시된다.

/김재용 기자